

# 케이크와 함께 월드컵 성공 개최를

## 100m 케이크 제작 전시, 업계 이미지 높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인구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100m 케이크 전시 및 절단 행사가 지난 5월 1일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월드컵을 30일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원과 인구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 행사 중의 하나로 개최됐다.

대한제과협회 수원시지부(지부장 조계중)가 주최하고 꿈빠도르과자점(대표 박광준)이 주관한 행사에서 눈길을 모은 것은 폭 40cm, 높이 15cm, 길이 100m의 케이크였다. 수원의 꿈빠도르과자점에서 제작을 지원한 이 케이크는 시트만 1,907kg, 버터크림 617kg, 시럽 138kg이 들어갔고, 재료비, 인건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해 4,000여만원이 소요된 작품이었다.

이 케이크는 길이만 100m에 이르는 초대형이었기 때문에 제과 기술인과 수원여대 제과제빵과 학생 등 90여명이 제조에 참여했으며, 사각형 시트를 연이어 붙이고 버터크림으로 아이싱한 형태로 수원시 인구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100m 길이로 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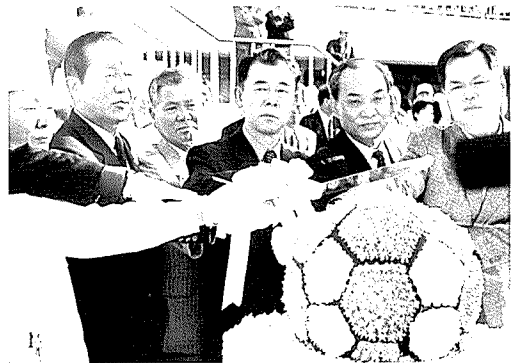
이번 100m 케이크 절단 행사는 세계 기네스 인정을 위해 100m 길이 측정을 마친 후 심재덕 수원시장.

고진곤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회장, 이덕주 부회장, 조계중 수원시지부장, 박광준 꿈빠도르과자점 대표를 비롯해 초청 인사 100명이 케이크 위에 '월드컵 D-30 및 인구 100만명 도시' 라는 문구를 초콜릿으로 기입하고 케이크를 절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자원 봉사자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100명이 초청인이 서명에 이어 케이크를 절단함과 동시에 운동장에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인구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폭죽이 연이어 터짐으로써 행사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월드컵 성공적 개최 기원과 인구 100만명 도시를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수원 시민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려 행사의 피날레를 100m 케이크 절단으로 장식했으며, 행사 종료 후 케이크를 개별 포장해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베이커리 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한발 다가간 자리를 마련한 의미있는 행사였다. <글 / 박종선 sunpark@mbakery>



① 고진곤 중앙회 회장, 이덕주 부회장, 조계중 수원시지부장과 꿈빠도르 박광준 사장(맨 왼쪽)이 초청 인사와 함께 100m 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있다.

② 100m 케이크의 세계 기네스 인증 신청을 위해 길이 측정을 하고 있다.